

濟州語 ‘비바리’ 語彙에 대하여

강 영 봉*

1

濟州語 가운데 ‘비바리’ 만큼 잘 알려진 어휘도 없다. 요즈음은 이른바 ‘3바리’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어서 膾炙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 ‘비바리’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한자어(예를 들면, 辮髮 被髮 = 披髮 肥髮 翻醇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나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어학적 접근은 유일하게 金洪植의 「‘비바리’ 語攷」(『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형설출판사, 1980: 315~329)가 있을 뿐이며, 결론 부분에서도 “... 확실한 語源에 대해서는 여기서 斷定할 수 없다고 보며, 앞으로 좀 더 考究됨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바리’의 어원을 탐색해보고 {-바리}를 하나의 어엿한 접미사임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비바리'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사전(장세영, 1954): '계집애'의 사투리.

큰사전(한글학회, 1957): 바다에서 고기 잡는 처녀. 준말 비발.

국어대사전(삼성문화사, 1971): ①(방언)처녀(제주).

②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처녀.
해녀.

국어대사전(이희승, 1981): ①처녀(제주).

②바다에서 고기잡는 일로 업을 삼는 처녀.

새우리말큰사전(성기철, 1983): 처녀, 또는 계집아이(제주).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1): ①바다에서 해물을 채취하는 일로
업을 삼는 처녀.

②처녀(제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 ①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
하는 일을 하는 처녀.

② '처녀'의 방언(제주).

국어대사전(금성, 1992):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처녀.

조선어대사전(대판 외국어대학조선어연구실편, 1987): 海で海産物を
採取する娘, 海女. 濟州島ではこの語が一般の娘を意味
し, 처녀(おとぬ)が上記の意.

사전들의 풀이를 종합해보면, '처녀·계집애·해산물을 채취하는 처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처녀>와 '계집애'는 제주에서 사용되는 語辭이며, 일반적으로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처녀)'에 있다.

한편 方言辭典類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石宙明 『濟州島方言集』(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52); 계집애.
 石宙明(『濟州島隨筆』, 보진재, 1968: 109) 여자의 명칭: 비바리(처녀,
 계집애) 비발년(딸년) 각씨(부인 아내) 새각씨(젊은 부인) 녕
 바리(부인) 예청(여편네) 예청네=예청들(아낙네) 할망(할멈).
 玄平孝(『濟州島方言研究 제1집』, 정연사, 1962: 246); 조금 성숙하나
 아직 미혼인 여자를 상스럽게 일컫는 말.
 方鍾鉉(『一養國語學論集』, 민중서관, 1963: 229); 가시내, 계집애.
 金亨奎(『韓國方言研究』, 서울대출판부, 1980: 54); 계집애·女兒.
 玄容駿(『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344면의 주545):
 처녀를 낮추어 부르는 말.
 崔鶴根(『韓國方言辭典』, 명문당, 1987: 147); 계집아이.
 朴用厚(『濟州島方言研究』(자료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20):
 처녀, 계집애.
 *비발년→계집애를 얹잡아 부르는 말.
 濟州道(『濟州語辭典』, 제주도, 1995: 283); 조금 성숙하나 아직 미혼
 인 여자를 상스럽게 일컫는 말.
 小倉進平(『朝鮮語方言의 研究』(상), 岩波書店, 1944: 67); 女子·女兒
 (이 자료집에서는 'pabari'를 들고 있으나 이는 'pibari'의
 잘못이다).

방언에서는 '계집애·처녀' 또는 '미혼인 여자(처녀)를 상스럽게(낮추어) 부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朴用厚는 '비바리'에 대해서 '비발년'을 '계집애를 얹잡아 부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년}에 이끌린 해석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우리는 '비바리'는 '처녀'이며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사람' 곧 '해녀'(달리 '잠수·잠녀·잠수'라고도 하는데 일단

'해녀' 라고 해둔다.)를 도출할 수가 있다.

3

'비바리'는 {비}+{-바리} 또는 {비발}+{-이}로 분석이 가능하나, 後者처럼 분석한 결과 한자어 '辮髮·被髮=披髮·肥髮' 등 머리카락과 관련 시키거나, 아니면 처녀임을 감안하여 '非發·非發'을 갖다대며 지나친 術學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前者로 분석하면, '비바리'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비}는 해산물과 관련이 깊은 語辭이며, {-바리}는 接尾辭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에 해당하는 해산물의 語辭로 '전복'을 뜻하는 '鮑'을 찾을 수 있는데, 옛 문헌에는 '박' 또는 '복'으로 나타난다.

訓蒙字會: 鮑 심포 박 俗呼鮑魚 又呼砑螺 又呼石決明 又呼九孔螺

譯語類解: 鮑 심포

方言類釋: 鮑 심포

倭語類解: 심복 生鮑

숙복 熟鮑

전복 全鮑

才物譜: 鮑魚 전복

物名考: 鮑魚 전복

字類註釋: 鮑 심복 박 俗 복 鮑魚有殼一名石決明一面附石

廣才物譜: 鮑魚 전복 形長如小蚌以扁 外皮甚粗 有孔如穿 成者生於石厓之上

그런데 12세기 초 문헌인 『鷄林類事』에는 '鰓曰必' 이 나타나며, 같은 책의 '梳曰苾音必' 에 따라 '鰓曰必' 의 '必' 을 [빋]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한편 『漢字古音辭典』(아세아문화사, 1975: 220)에서도 '必' 의音を [pi/pit/ piət]으로 읽고 있어 또한 [비/빋]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비/빋]은 다음과 같은 제주어에서도 '전복' 이란 뜻이 확인된다.

- 빋창: 전복을 따는 데 사용되는 도구.
- 암빋: 전복의 암컷.
- 수빋: 전복의 수컷.
- 수빋여('수빋' 이 많이 서식하는 여): 남제주군 성산을 신앙리의 바다 이름.
- 빋여(전복이 많이 서식하는 여): 제주시 도두동과 남제주군 성산을 신앙리의 바다 이름.

{-바리}가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전은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1991)과 『국어비속어사전』(김동언, 1999)이 있을 뿐이다. 사전적 설명에 따르면, “몇몇 뿌리에 붙어서 그 뿌리가 뜻하는 성질이 두르러지게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붙는 접미사라 하고는 그 예로 “꼬-, 꺾-, 악-, 하-”를 들고 있다.

파생법을 다룬 몇몇 글에서는 접미사 목록에 {-바리}가 올라 있기도 하다. 곧 김계근의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뒷가지에 의한 파생법」(1969,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도서출판박이정, 1996: 151)에서 이름 씨에서 파생한 접미사로 이 {-바리}를 들고 그 예로 “벗-, 새암-, 악-”를 들고 있으며, 고영근의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광문사, 1974: 99)의 목록에서도 “{-바리}(Ma): ①명→명; 벗- 새암- 악- ②의태→명; 트레- ③不→명; 뒤뜸- 데뜸-”을 들고 있다. 崔圭一의 『한국어 어휘형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1989: 206)에서는 접미사 목록에 {-바리}를 들고(예는 앞의 고영근과 같다) 있으나 ‘비-바리’가 추가된 것

이 특이하다. 하치근도 『국어파생형태론』(남명문화사, 1989: 186)에서 ① 이름씨+ (벗- 새암- 약-) ②상징어+ (트래-) ③불구뿌리+ (뒤뜸- 데뜸-)를 들고 접미사의 조건으로 “주로 가치 부정적인 뜻을 가진 <내적 상태성> 뿌리와 결합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한편 제주어에서는 송상조의 『제주도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박사 학위 논문, 1991: 76)에서 {-바리}를 불구 뿌리에 연결되는 접미사로 처리하고 그 구체적인 예로 ‘다금-, 비-, 냉-’(이 ‘냉바리’에 대해서 石宙明(1947)은 ‘냉바리’ ‘색시(‘비바리’에 대한 말)’와 ‘냉발이=숫냉발이’ ‘숫등걸, 냉과리’를 제시하고 있고, 현평효(1962)에서는 ‘냉과리’에 맞먹는 어휘로 ‘냉바리’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朴用厚(1988)에서는 ‘냉바리’ 결혼한 색시와 ‘냉바리=숫냉바리’ 숫등걸, 냉과리를 제시하고 있다. 김홍식(1980: 318)은 “비바리에 대해서 既婚女를 戲弄調로 ‘냉바리’라고도 하는데, 이 ‘냉바리’란 本是 그 構成이 ‘내(煙)+바리’로서 그 뜻은 標準語 ‘냉과리’에 該當되는 말이다. 이 ‘냉바리’가 ‘비바리’에 對가 되는 既婚女를 일컫게 된 것은 아마 形態構造上 그 直接成分中에 같은 유형의 派生接辭(바리)를 包含하고 있는 같은 派生構造라는 일종의 類推에서 緣由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냉바리’는 ‘냉과리’에 맞먹는 어휘로 ‘비바리’에 대가 되는 어휘라고 한다면 ‘미주알고주알’에서 ‘고주알’처럼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휘는 아니라고 보인다)를 들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뜻하는 성질이 두르러지게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과 “가치 부정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미사 {-바리}가 들어가 사람을 뜻하는 어휘를 찾아보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감바리: 잇속을 노리고 약삭빠르게 달라붙는 사람
- 군바리: ‘군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폼바리: 마음이 좁고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데툽바리: 말과 행동이 거칠고 미련한 사람
- 뒤툽바리: 어리석고 둔하며 거친 사람
- 뒤툽바리: 어리석고 미련하며 하는 일이 찬찬하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벗바리: 뒷배를 보아주는 사람
- 샘바리: 샘이 많아서 안달하는 사람
- 악바리: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며 모진 사람
- 애바리: 애 바른 사람
- 어바리: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
- 질똥바리: 행동이 느리고 소견이 꼭 막힌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트레바리: 이유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성격, 또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
- 하바리: 품위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힘바리: 힘이 세서 무엇이든 힘으로 하려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한편, 이 접미사 {-바리}는 물고기 등에 연결되기도 한다(곰바리(방) 날바리 남정바리(방) 눈툽바리 다금바리 닷줄바리 도도바리 무늬바리 붉바리 우각바리 우럭바리 자바리 참바리 흥바리 황줄바리 등등).

4

결국 제주어 '비바리'는 {비}+{-바리}로 분석되며, {비}는 '전복(鰈)'을 뜻하고, 접미사 {-바리}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가치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비바리'의 원래 의미는 '전복을 따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며, 이런 작업은 주로 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① '해녀를 낮잡아 이르

는 말'을 뜻하다가 그 의미가 축소되어 ② '처녀를 낚잠아 이르는 말'이 되었다고 보인다.